출가자원 발굴에 군승 수급도 달렸다

[기획] 군승 파송 절벽 다가온다

③ 군승 수급 출가자 감소 파고 넘나?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출가자 급감과 고령화에 적합대상 찾기 어려워져

가톨릭 방식 의무복무도 교육통한 역량배양 필요

진급 · 나이 복무개편 협의 연계출가 장기수급 모색



최근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을 통한 군승 수급이 없어지며 군승 파송은 사실상 군승요원 파송과 다름이 없게 됐다.

군승으로 단일화된 불교군종장교 수급에 있어 군승요원 선발의 중요성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조계종은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종단 주도의 군포교 정책을 수립했고 2003년 군불교위원회를 거쳐 2005년 군종특별교구를 출범시켰다. 각급 군법당에는 종정 예하 교시가 걸렸고, 2009년에는 종헌 내 독신 예외 조항 삭제를 통해 조계종 소속 승려로서 군승법사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최근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을 통한 군승 수급이 없어지며 군승 파송은 사실상 군승요원 파송과 별반 다름이 없게 됐다.

군승요원은 조계종 사미 · 사미니계 이상 스님으로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졸업 이상 학력을 지니고 만 35세를 넘지 않는 스님을 대상으로 한다. 단 병역을 필한 스님의 경우 제대군인지원법에 따라 38세까지 응시연령을 보장한다.

사미 · 사미니 급감 추세

군승요원 수급은 사미 · 사미니계 수계자 현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조계종 교육원(교육원장 진우)이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개최한 제62기 사미 · 사미니계 수계교육에서는 남행자 10명, 여행자 16명 등 총 26명이 이수했다. 1990년대에는 4~500명 가량이 수계를 받은 것에 비해 현격이 감소했다.

조계종이 통합 행자교육원을 운영한 1991년부터 집계된 사미 · 사미니 수계자 현황에 따르면 1999년 532명을 정점으로 2000년대 이후에는 해마다 줄고 있다. 사미 · 사미니계 수계자는 2002년 406명, 2006년 334명, 2008년 286명, 2010년 287명, 2013년 236명, 2015년 204명을 기록한 뒤 2016년부터 100명대로 떨어졌다. 2016년 157명, 2017년 151명, 2020년 131명 등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전법에 나서고 싶은 비구니 스님들의 원력이 있지만, 절대적인 감소 속에 비구니 군승 파송 또한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 출가자는 1993년 228명, 2002년 169명, 2008년 118명, 2017년 57명 등으로 더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가자 고령화 문제 또한 군승 파송에 영향을 미친다. 조계종 교육원이 집계한 연도별 사미 · 사미니 수계자 출가 연령대 현황을 보면 2000년대 이전에는 20대, 2000년대에는 30대, 2010년 이후에는 40대가 주를 이룬다.

세납 29세인 선오 유주영 군승법사는 "9년 전 출가 때만해도 어린 스님들이 많았는데 점점 젊은 스님들이 줄어드는 것이 피부로 느껴진다"며 "요즘 세대들은 밖에서 할 것이 많다고 한다. 급격한 사회 변화가 출가자 감소로 이어지는게 아닌가 싶다"고 토로했다.

가톨릭 방식 의무할당 현실적 어려움

불교와 마찬가지로 최근 수년간 신규 사제 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톨릭은 각 교구의 신부 10%를 의무적으로 군종요원으로 선발해 군신부로 임관시킨다. 하지만 가톨릭계 또한 위기를 느끼고 있다. 가톨릭 신규사제 수도 2017년 185명에서 2021년 33년 만의 최저치인 111명을 기록했다. 군승요원 수급을 위한 의무할당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미 사중에서 필요한 젊은 스님들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 여기에 군포교 현장에서의 역량 저하도 주요 문제 중 하나다.

정행 이익수 군승법사는 "목사들은 군목사로 가기 전 3년간 교육을 거친다. 신부들은 군대를 갔다 온 이들로 구성된다"며 "현장에서 군승 개개인의 역량이 불교를 대변한다. 출가와 함께 곧바로 군종장교로 복무하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장기복무 확대, 전력 유지 대안될까?

신규 군종장교 정원은 군 종교인구에 비례하며, 여기에 전역자들을 기반으로 매년 파송인원이 결정된다. 전역자들이 다수 발생하면 파송 요구인원도 늘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장기복무 비중을 늘이는 방안도 대안으로 꼽힌다.

이미 불교계는 1993년 국방부와 종교별 신자수 배정원칙 하에 불교군종장교 정원을 늘렸으며 1994년 종단 개혁 후에는 동국대 불교대학 뿐만 아니라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스님들이 군종장교로 임관할 수 있게 했다.

종단이 출가자 감소 속에서 군종장교 장기복무, 즉 진급 정원에 대한 정부와의 협상 등도 기대해볼만 하다. 많은 군승법사들이 현재도 단기복무 후 재입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H군승법사는 "장기복무자가 늘면 순환구조가 연장될 뿐이고, 결국 수급난은 그대로다. 군종장교는 35세까지 입영연령 예외를 적용받지만, 군인사법에 따라 계급별 나이나 근속 정년이 정해져 있어 본인이 장기복무를 하고 싶어도 전역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서도 "젊은 세대 유입 감소라는 공통화두를 지닌 종교계가 정부와 군종장교 장기복무를 원하는 이들이 할 수 있도록 논의를 전개할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예비출가 등 종단 장기플랜 마련

'찾아오는 불교' 에서 '찾아가는 불교' 로 시대적 요구가 변모하듯 출가 또한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발심의 기회를 열어주는 방향으로 힘써야 그에 수반하는 군승 수급난도 해결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 3월 조계종 중앙종회서 출가특위(위원장 정범)가 발의한 종립학교 예비출가 신설안을 보면 만30세 이하 일반인이 종립대학에 예비출가자 전형으로 입학해 졸업한 뒤 출가하도록 한다. 수계 후에는 종단서 지정하는 군승 · 종무기관 등에서 3년 이상 복무토록 한다.

발심자에게 장학 및 해외연수 혜택 등을 부여해 학업 이수 후 출가, 스님들이 필요로 하는 각급 기관에서 근무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다. 당시 종회에서는 파격적 출가제도 개편에 대한 거부감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 끝에 철회됐다.

종회의원 정범 스님은 "일종의 혜택을 주면서 장기적으로 출가자를 키워내자는 의미였다"며 "이들이 활약하기까지 4~5년 가량은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단기적인 수급방안과 장기적인 육성책 병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비슷한 중앙승가대 학업연계 출가인 '유니출가' 의 경우 졸업 이후의 문제로 매년 2~3명의 스님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젊은 스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군승 수급 뿐만 아니라 출가자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파격적인 시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계사 · 봉은사 광제사 건립 위해 각각 1억원 쾌척

6월 23일, 아름다운동행에 "건립불사 원만회향 기대"





조계사(사진 왼쪽)와 봉은사(사진 오른쪽)가 잇달아 세종시 광제사 불사에 기금을 전달했다.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주지 지현)와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가 세종 광제사 건립 불사에 각각 1억 원을 쾌척하고 원만한 불사 회향을 발원했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과 신도들은 6월 2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아름다운동행에 세종 광제사 건립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원행 스님은 "세종시에 곧 국회의사당이 들어서는 등 규모가 커짐에 따라 광제사가 한국불교와 전통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면서 "조계사가 광제사 불사에 큰 역할을 해 줘 고맙다"고 주지 스님과 신도들을 격려했다.

주지 지현 스님은 "세종 광제사 건립 불사는 신도시를 무대로 포교에 나설 포교전진기지 건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조계사는 이날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를 위해서도 기금 3000만 원을 쾌척했다.

같은 날 봉은사도 광제사 불사를 위해 1억 원을 쾌척했다.

원행 스님은 "봉은사 사부대중의 관심과 동참으로 불사가 순조롭게 진행됐고 이제 내부만 정돈하면 되는 상태"라면서 "어려운 시기에도 종단의 역점불사에 동참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권영세 장관 "남북관계 회복에 종교계 지원 절실"

6월 23일, 원행 스님 예방하고 "한반도 평화 위해 협력" 약속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협력" 약속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6월 2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새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견해를 나눴다.

원행 스님은 먼저 코로나19 사태 전 남북 종교인들이 금강산 신계사에서 새해맞이 행사를 하면서 약속한 것들을 떠올렸다.

스님은 "당시 가톨릭은 평양 장충성당을, 유교는 개성 성균관을 복원하고 불교는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를 건립하기로 했다"면서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진척되지 않아 아쉽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권 장관은 "종교계가 추진하려던 사업이 진전되지 않아 정부로서도 아쉽다"면서 "새 정부는 기존 대북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발전시켜나가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강산은 불교계에서 의미 있는 지역이고 신계사도 복원한지 15주년을 맞았기에 이를 기념하는 행사들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종교계가 힘써준다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원행 스님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기대하며 조계종도 정부의 대북 사업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예방 자리에는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월우 스님, 총무원 총무부장 삼혜 스님, 사회부장 원경 스님, 사업부장 삼혜 스님, 민추본 사무총장 범종 스님 등이 배석했다. 임은호 기자

백만원력 결집불사

희망의 불교,
미래의 불교를 함께 열어갑시다.

백만원력 결집불사

-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 준공
-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
- 불교요양원 건립
- 경주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 10.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관 건립
-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 기금 조성
- 위례 상월선원 신축불사
- 나눔 및 교육기금 조성

대한불교조계종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 준공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경주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모연동참안내

백만원력결집불사, 대한불교조계종 검색

NAVER daum

www.buddhism.or.kr

▶매일 발우저금통에 보시

▶정기후원(CMS) : 신청서 또는 전화신청

▶후원계좌 예금주 : 재)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농 협 301-0248-0882-41
국민은행 008601-04-152458
우 체 국 010579-01-005480

▶ARS 060-700-0012(한통화 3,000원)

▶문의전화 02)6273-0108, 0109

• 모아진 발우저금통은 재적사찰 또는 문의전화로 상담해주세요.
• 재)아름다운동행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설립한 기부재단으로 백만원력결집 공식 모금창구입니다.